

# 서울시, 체계·포용적 경제정책 수립 정례화로 경제 펀더멘털 진단하고 성장기반 마련 필요

##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 위해 세계 주요도시의 경제정책 모니터링 필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한 서울시는 도시경쟁력 5위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급변한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시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계 주요 도시의 경제정책 현안을 모니터링하고, 서울시 경제와 산업정책에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글로벌 9대 도시 선정해 도시별 거시경제지표 분석, 경제성장 추이 파악

해외도시 중 메가시티에 해당하거나 금융산업 또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등의 산업에 특화된 도시 9개(뉴욕, 도쿄, 런던, 파리, 상하이, 샌프란시스코, 베를린, 싱가포르, 서울)를 선정하였다. 경제 규모와 성장률 전망을 위하여 도시별 거시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경제성장 추이를 파악하였다. 과거 20년간 세계 9대 도시 평균 성장률은 3.98%, 상하이 11.1%, 싱가포르 5.6%, 샌프란시스코 4.6% 순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은 2.8%로 9개 도시의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도쿄는 0.6%로 최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상하이에는 고속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전후 평균 성장률은 4.6%에서 -2.6%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상하이 1.4%, 도쿄 0.2%, 서울 -0.1%로 빠른 속도로 회복하였고, 서울과 도쿄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하여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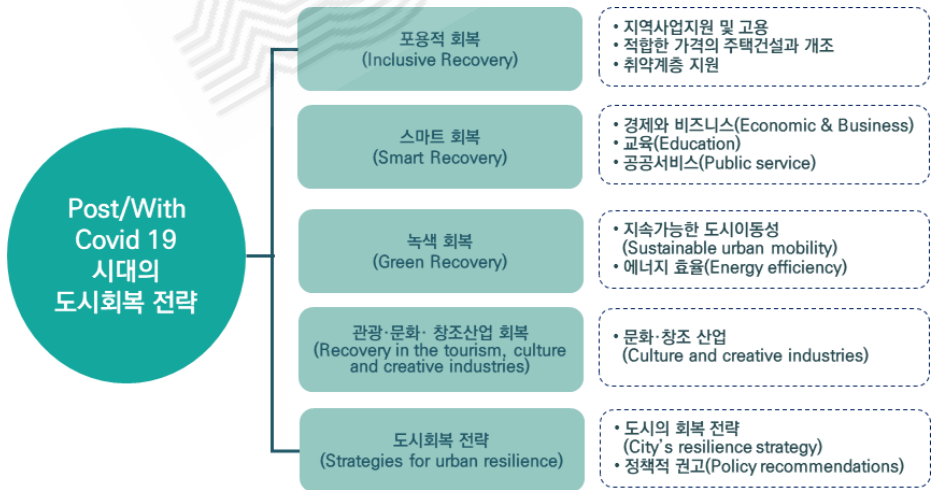


[그림 1] 주요 해외도시 경제성장을 비교

### 코로나19, 세계도시경제에 큰 타격 ... 5대 도시회복전략으로 감염병 위기 극복

코로나19 사태는 단기간에 세계도시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국제적 감염병 발생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붕괴 등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세계 대도시들은 개별 위기관리 및 단기 전략을 마련한 후, 5가지 장기 도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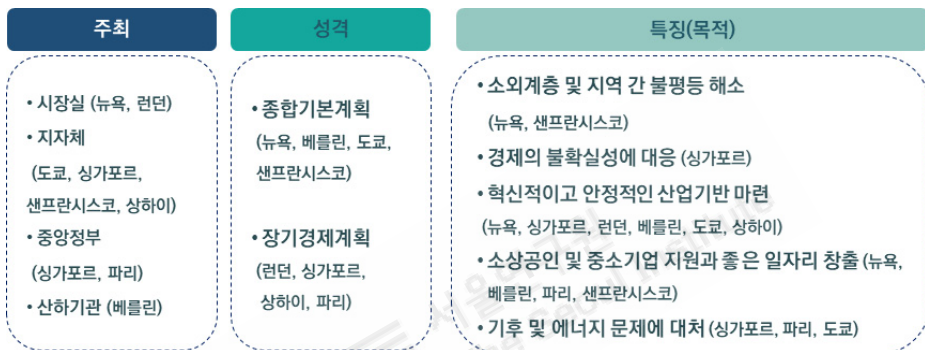
대부분의 도시가 포용적 전략, 도시회복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과 도시회복력 개선을 중점적인 코로나19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림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해외 주요 대도시의 5대 회복전략

## 장기도시정책, 도시별로 다른 집행체계 ... 종합기본계획·장기경제계획 구분

주요 도시는 정기적으로 경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계획의 성격은 크게 종합기본계획과 장기경제계획으로 구분된다. 경제 계획의 주요 목적은 불평등 해소, 경제성장 지속, 기후 문제 대처 등 복합적인 이슈에 대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도시의 주요 산업정책은 디지털과 환경 분야의 산업에 집중되어 관련 세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유럽은 디지털, 환경 관련 산업, 미국은 문화, 관광, 의료 관련 산업, 아시아는 디지털,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과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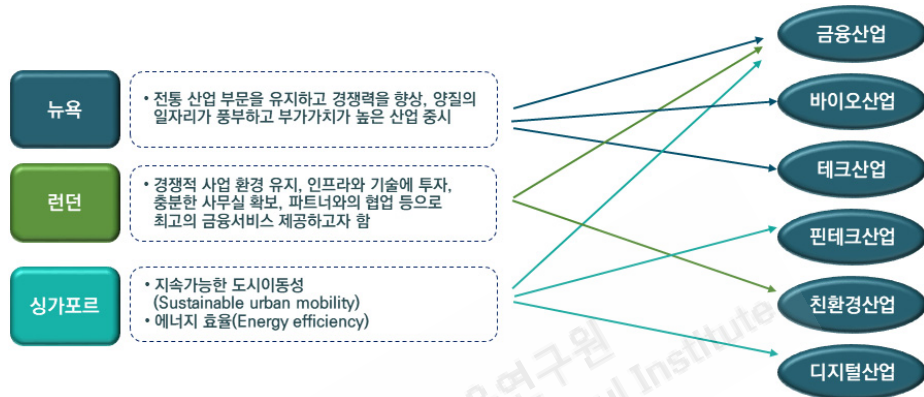
[그림 3] 해외 주요도시 장기경제계획 요약

## 뉴욕·런던·싱가포르,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금융산업에 특화된 정책 시행

3대 핵심도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산업과 금융산업에 특화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적인 정책과 산업으로 금융산업·핀테크, 바이오산업, 테크산업, 친환경산업, 디지털산업이 대표적이다. 금융산업은 관련된 기관, 기업체, 인력 등이 집적할수록 성장 가능성과 시너지 효과가 탁월하다.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 글로벌 금융도시는 세계적인 금융업계 본사와 지사, 연구소, 대학 등 금융 인프라가 집적된 환경으로 도시 그 자체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글로벌 도시의 금융산업은 전통적인 산업으로, 특별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민간 영역에서는 자율경쟁형식으로 성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련 테크산업이 주

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산업 활성화 정책과 세부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기술 혁신을 위한 R&D 투자, 고급 인재 양성 및 유치, 글로벌기업 유치,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스타트업 육성 등의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그린 정책과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경제회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산업과 결합하여 성장하는 특징이 있다. 친환경 도시 인프라 구축, 녹색금융산업 육성, 그린 펀드를 조성하며,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4] 3대 핵심도시 주요 산업의 정책 방향성

## 중장기 경제·산업정책 수립 정례화로 서울 경쟁력 강화·성장동력 견인 필요

정기적으로 체계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해 서울의 경제 펀더멘탈을 진단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 해외 대도시 핵심 경제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정책 사례의 조사가 필요하다.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인적 교류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력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 활성화 등에 기반을 둔 산업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있는 테크산업과 응용산업 간의 동반 성장이 가능한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린산업, 친환경 산업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스타트업 집적지와 혁신공간을 조성하여 양질이 일자리를 창출, 클러스터 테크허브 형성으로 경쟁력 있는 신성장 산업 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민-산-학-시 간 유기적

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고급 인력의 유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원 마련을 위해 녹색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NY 바이오테펀스 상업 기금, 런던 투자펀드)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